

# 광주시교육청, 중앙공원으로 이전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후 청사 이전과 관련, 광주 중앙공원을 최적으로 보고 본격 추진키로 해 청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비공원 면적, 즉 개발 면적이 1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발표된 뒤 청사 이전작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 나섰다.

1단계까지 합쳐 5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지리적 여건과 행정구역, 주변 환경, 개발면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서구 중앙공원 1지구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내렸다. 신청사와 함께 패키지로 이전할 특수화교가 5개 지구구 가운데 서구만 유일하게 없는 점이 중요하게 반영됐다.

## 비공원 시설 8.8%→10% 안팎 상향 불가피

### 환경단체·민관 거버넌스·사업자 동의 필요

필요한 부지는 청사 2만5000㎡, 특수화교 1만5000㎡ 등 4만㎡ 규모다.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한양으로, 사업자인 한양 측은 공원 부지 241만㎡를 사들인 뒤 이 중 21만2000㎡, 비율로는 8.8%를 택지(7547구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민관거버넌스가 정한 비공원면적 상한 10%에 1.2% 가량 낮은 수치다. 면적으로 따지면 3만㎡ 남짓이다. 택지면적을 일부 조정하거나 공공청사인 점을 감안해 비공원 면적을 비공원부지 상한기에 맞춰 늘릴 경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같은 의지를 정중

제 행정부시장 등 시 고위간부들에게 최근 전달했고 설 연휴를 전후로 광주시 등에 공식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988년 개칭한 교육청 청사는 협소한 공간과 구조적 안전문제 등으로 증축이 어려운 반면 근무 여건 개선과 민원인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아 이전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청 면적이 1만㎡로, 경기(3만4000㎡), 전남(3만3000㎡), 울산(2만9000㎡), 전북(2만6000㎡), 대전(1만7000㎡)보다 적은 데다 연건평도 절반 이하인 반면 직원수는 40여 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점도 이전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당장 비공원면적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환경단체 등 민간거버넌스 차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사업자 측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아파트 부지를 일부 축소하거나 교육청 이전과 특수화교 신설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지도 예단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중앙공원의 또 다른 반쪽인 2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탈락업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광주시 공무원들과 관계자는 "통상 개발 면적은 30%까지 허용되지만 중앙공원의 경우 10%만 개발하고 90%는 공원이거나 녹지로 보존하기로 합의된 곳여서 환경단체와 민관거버넌스, 또 사업자인 한양 측이 공원내 청사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과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22일 오전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묘역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 영·호남 시·도지사 8명 광주서 지역균형발전 합의

### 공동정책 과제 8건, 공동 성명서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22일 민선7기 처음으로 광주에서 모여 제15회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회의는 영·호남 공동정책 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 협의, 공동성명서 채택, 차기 의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공동정책 과제는 8건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강 총량제 강화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균등하게 중심보다 국고사업 전반 대상으로 이양(지역 재정지원도 제고와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비를 상향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도별 적극 홍보와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 동구, 도시공원 태양광 LED금연표지판 설치

광주 동구가 푸른길공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공원 5곳에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LED 금연표지판은 별도의 전기공급 없이 낮 동안 집열판을 통해 모아진 에너지로 야간에 점등되는 친환경·고효율 표지판이다.

LED표지판은 금연환경 시각지대와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설치했으며, 설치장소는 푸른길공원 3곳(금호타운 뒤편 광장, 산수문화마당, 동명동 작은공원), 금남로공원 1곳, 두암근린공원 1곳 등 5곳이다.

## 서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광주 서구가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 배출업소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홍보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지침 배포는 매년 의료폐기물의 증가됨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기 위한 조치.

의료폐기물은 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전용용기로 배출해야 하며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의료사업장에서는 일반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 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번 지침배포와 함께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일반폐기물과 혼합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남구, 다문화가족 구성원 한자리에 모인다

광주 남구 관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족 설 한바탕' 행사가 열린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명절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MG월산세미음금고와 사랑가족봉사단, KT나주지점 생신협, 남부경찰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150명이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한복 입기를 비롯해 인절미 만들기, 베트남 쌀국수 및 중국 자오쯔(만두), 팔리된 반식 만들기 등 나라별 전통음식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 북구, 제1기 예산참여청년위원회 위원 모집

광주 북구가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오는 29일까지 청년정책 예산편성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1기 예산참여청년위원회 위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운영하는 '예산참여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예산편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예산·결산(안) 의견 제출,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활동 등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광산구보건소 "홍역 감염 주의하세요"

최근 홍역환자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산구보건소가 지역 사회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홍역은 바이러스(Measles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고열·기침·코물·결막염 등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 접촉 또는 공기 흡입으로 전파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1차 97.8%와 2차 98.2%로 높은 편이나, 접종시기 전인 영아와 면역력이 약한 개인을 중심으로 유행·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표준 홍역 접종일정인 1차 생후 12~15개월과 2차 만4~6세에 반드시 접종해야 질병을 피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2차)**

본 회사는 2019년 01월 14일 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분은 2019년 03월 2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01월 23일

유한회사 비앤비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2길 8 (신기동)  
청산인 양광천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 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 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 (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일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